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7호 [루게 제2705호]

주제 111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음력 6월 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가 6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비서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장들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부부장들이 방청하였다.

회의에서는 각급 당지도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선정비하고 정치활동들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 중앙위원회 일부 부서 기구를 고칠데 대한 문제, 각 도당 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내올데 대한 문제, 당총무사업규정과 기료관리체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보위, 안전, 사법, 검찰부문 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며 당면 하여 올해중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 일꾼들의 정치 실무적자질과 사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학습제도를 세울데 대한 문제, 전당적으로 근로단체사업을 증시하고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당사업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임무와 당면과업, 전당적으로 당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주요원칙과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시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3대전략을 천명하시여

이제 4일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 겨레는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불후의 로고와 애국애민의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돌이켜보면 1972년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불후의 로고와 애국애민의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주제61(1972)년 5월 3일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의 대표를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뜨거운 민족애, 결연한 조국통일지, 철의 론리로 조국통일3대원칙의 한조항, 한조항을 알기 쉽게 천명해주시었다.

남조선의 대표를 위대한 주석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전적인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확약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

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지난 50년간 공화국은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전민족 대단결10대강령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경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었으며 두차례의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어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를 안겨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기 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 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온 겨레가 내외호전세력의 대결광란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려는 유세열(정권)의 동족대결광란은 극도에 이르렀다. 외세의 《동맹우선》을 떠들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남에게 내맡기는 사대매국행위를 꺼리검없이 벌리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헐뜯고 그 리행을 거부하던 조국통일3대원칙을 옹호, 대결을 고취하고있다.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났던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동족을 겨냥한 《선제타격》망발들이 때없이 터져나오는 속에 방대한 핵전쟁무력이 조선반도에도 쓸어들고있는것이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이다.

외세의 전쟁머슴군이 되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대결광란, 전쟁책동을 수습방관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참혹한 사태가 조성될지 알수 없다.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추호도 용납

하지 말고 단호히 규탄배격하여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한 반동일부리들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자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기 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 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온 겨레가 내외호전세력의 대결광란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려는 유세열(정권)의 동족대결광란은 극도에 이르렀다. 외세의 《동맹우선》을 떠들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남에게 내맡기는 사대매국행위를 꺼리검없이 벌리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헐뜯고 그 리행을 거부하던 조국통일3대원칙을 옹호, 대결을 고취하고있다.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났던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동족을 겨냥한 《선제타격》망발들이 때없이 터져나오는 속에 방대한 핵전쟁무력이 조선반도에도 쓸어들고있는것이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이다.

외세의 전쟁머슴군이 되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대결광란, 전쟁책동을 수습방관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참혹한 사태가 조성될지 알수 없다.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추호도 용납

이끄시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다그쳐 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공화국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배짱을 안겨주는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려이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필승의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조선인민군은 나라와 인민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펼쳐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중한 정치예지로 청년층에서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청년층을 백승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시었다.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인 청년동맹의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러나 전선에서 청년결정군대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어 격려하시고 군대중시를 백승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었다.

적대세력의 위협과 핵공갈을 영원히 종식시키시려고 군력강화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사상과 신념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만도 못하며 총대에 사상이 결합되면 그 위력은 백배배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큰 대적인 무기도 무용지물과 불과하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총대장, 총대정치지도원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과 중요회의들에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에 선차적임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합일의 7면대로, 전하의 군위부대들을 만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훈련을 강화하여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강위력한 전투대로로 준비되도록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조선로동당의 3대전략을 천명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시대의 변천과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국가와 인민이 영원히 백승의 한길로 나아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치로선을 제시하시는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위대한 정치가이시이다.

강권과 천황이 란무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현실을 놓고 세계 각 비결을 알고싶어 하였다.

주제104(2015)년 10월 10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힘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에 혁명적로선의 생명이고 힘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 70년사의 고귀한 총화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를 제 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의 3대전략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구현해오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으로 영원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려는 철의 의지가 비껴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중시에 조선로동당의 생명이라는 투철한 견해를 지니시고 인민

이복순